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9년 3월 8일 (월) 제732호 창간 1655년 4월 11일 <주관>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권 주간 고영문 편집장 임승희 인쇄인 홍준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통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원신리 산 18

온라인 수강신청 문제 속출

전공수업조차 못듣는 경우까지 발생

방종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했던 온라인 수강신청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신청 변경을 하는 재학생은 물론, 수강신청을 처음하는 새내키들도 불편을 겪어 양배울터 학생들은 대학 당국의 행태에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선 나타나는 문제는 교무처의 행정적 오류이다. 서울배울터 사회과학계열의 경우 월·수·금에 각각 전공 1과 목적을 수강해야 하는데 금요일이 경우 정지할 수업이 없어 수요일에 정지할 수 있는 학생은 결국 정지할 수를 채워야 하는 문제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배울터 전산실에서 온라인배울터로 내려오는 회선인 단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접속을 시도해도 회선에 과부하가 걸려 수강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양배울터 전산실측은 "시스템개발 계획은 이문동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수강신청하는 것을 지도하는 역할만 맡는다"고 일관했다. 이와 관련 이문동(사학·사범)이 1)장은 "접속이 안돼 하루를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산배들의 경우로 PC방에서도 시도해 봤지만 미친거지"라며 "중앙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태만한 것이 아니라 학과 측이 무책임하다"고 재기했다. 또 같은과 조혜림(1)장은 "이전에 산배들이 했던 OM카드 방식을 여러번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배울터는 행정·기술적 종속과 현상이 심해 이 문제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배울터 전산실에서 온라인배울터로 내려오는 회선인 단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접속을 시도해도 회선에 과부하가 걸려 수강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양배울터 전산실측은 "시스템개발 계획은 이문동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수강신청하는 것을 지도하는 역할만 맡는다"고 일관했다. 이와 관련 이문동(사학·사범)이 1)장은 "접속이 안돼 하루를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산배들의 경우로 PC방에서도 시도해 봤지만 미친거지"라며 "중앙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태만한 것이 아니라 학과 측이 무책임하다"고 재기했다. 또 같은과 조혜림(1)장은 "이전에 산배들이 했던 OM카드 방식을 여러번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배울터 총학생회는 온라인 수강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대학당국에 제기하고 있으며, 사당에대 학생회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4일(목) 노년극장에서 회의회를 진행하여 교무처에 불만 내용을 담긴 쪽지를 붙이는 등 항의 표시를 했다.

한편 양배울터 총학생회는 지난 4일(목) 교무처장 면담을 통해 △학과 측의 정식사과문 공고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연장(24시간 내내) △신입생 수강신청시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수강신청 불편으로 인한 출석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에 대해 약속을 받아냈다.

이상에 살피본 것과 같은 문제점은 어느 한 부서의 잘못이 아닌 전 학교차원으로 종합적인 준비가 매우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강신청시 과부하가 걸리는 원인은 학생들이 수강희망과목 정렬 초과를 우려하여 신청시간 초기에 한꺼번에 몰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의당 정원제한을 없애면 같은 시간대에 많은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 또 기존의 웹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자체내부 시스템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수의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이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1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다음 학기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회선을 늘리는 등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문제로 대학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가 상당해 개강초부터 학교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이 문제로 대학당국이 이전과 같이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대학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류재식·우혜나 기자



'수배자 어머니의 눈물'

영남 시절 정치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비롯해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은 술에서 지내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울부짖는 97년 한홍련 대의원 최원성(간대·92)의 어머니 모습이다.

정조경 기자

서어과 교수임용 물의 빚어

용인 전임교수 선임과정에서 문제 드러나

대학당국은 99년 1학기 용인배울터 전임교수로서 29명의 교원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5명체용으로 예정보다 14명의 전임교수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서언어과의 경우, 교수의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맥을 이용해 교수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언어과에서는 개강부터 지난 4일(목)까지 3일간 수업 거부, 입사과회를 열어 대학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언어과와 학생회장 이현정(3)은 전임교수 채용심사위원과 어학부문과 문학부문에서 각각 1위를 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러한 객관적 결정을 무시, 채용심사위원이 자질이

의심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서언어과 교수들은 인사위원회에 영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두 교수의 과묵한 서언어문화사(1)과 민선재교수의 서언어발달사(1) 강의의 수강인원을 최소 80명 채우는 시늉을 하고 있다.

또 사(월) 총정리에서는 서언어과의 요구대로 △전임교수채용심사위원 1위를 차지한 교수들의 강의 진행 하용 △3, 4월내로 임용교수를 확정, 2 학기에 있는 학과 교수 채용 △14명 미채용 교수 재심사 등의 내용으로 확대판되었다. 또 이현정(3)은 "학교측은 전임교수채용시 평가기준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수업 거부부는 잠정적인 연가일뿐 2학기때에도 전임교수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서언어대 학생회장 이광호(영여 4)은 "대학당국이 애초에 용인전임교수를 채용하려 한 것은 중북부에 대한 순환교수의 폐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학과에서는 서언어과교원이 아니라 나머지 학과의 교수충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서언어과의 의혹에 대해 인사위원회 중 한 교수는 "서언어과의 움직임은 알고 있으나 인사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교수 개인이 대담할 문제는 아니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우혜나 기자

3·1절 민족대회 열려

미·일 전쟁행동 반대 결의

80주년 3·1절을 맞아 진정한 3·1 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민족대회(민족대회)가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중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제이단체 인사들과 청년학생, 시민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행동 반대 △민족대회를 부정하고 애국민을 탄압하는 국가

보안법 완전철폐 △반민족·반통일 간대 정권 규탄 △평화협정체결 △민족자주 권위로 통일조국 건설 등의 정당성을 합의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우리는 3·1절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중립된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을 새롭게 결의한다"고 고 함하고 "우리는 미국의 5027전쟁 계획 등 한반도를 겨냥한 외세의 전쟁행동과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경제봉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족이 총체적 국난 극복에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면에서 이어짐 김결선 기자

지 면 안 내

- ▶ **통곡금 삭감투쟁 분석** 3면
통곡금 삭감하더라도 기성회비 반대면으로는 부족해, 수업료 삭감과 주한 미군철거 투쟁을 해야 된다는게, 그해 맞아~ 울랄라 말라
- ▶ **외대내 성폭력 사건?** 6면
성폭력, 외대는 사지지대?방중에 연이은 한대 성폭력 사건으로 학교가 들쭉날쭉하다. 첫, 외사함을 조심하시오!
- ▶ **조계사 농성단인 우배울터 용인배울터 김대성군 만나** 8면
우리학교 용인배울터 97년 경상대학생회장이었던 김대성군은 한홍련 대의원 미발표로 수배자의 몸이 되었다. 그가 대학우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 ▶ **일개교수혁신사 이** 10면
'실용적 학문'을 학습시킨다면서 교육받은 우리,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노동력을 안 값에 착취당하고 있지?

민중의 '자주권' 상실시대

▲"우리는 한국을 분할해야 한다. 그리고 그일은 오늘 4시까지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 육군성 일반참모본부의 디스크 대령과 찰스 본슨 두 대령은 30여분 만에 박정희 지도를 가지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하였다. 1945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의 일이었다.(브루스커머스 '한국 전쟁의 기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우리 민족은 식민통치 35년 정상의 기쁨에 들떠있었다. 또한 35년의 고통이 '나라의 주권을 외세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은 미국의 권한하에 시행된다'는 침략선언을 들고 온 미군정이 들어 서면서 우리민족은 또한 '자주권'을 유린당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자주권'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3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분단이 책임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행사를 강대국(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넘기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자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5027전쟁계획에 따라 핵무력을 사용한 전면적인 전쟁군사훈련을 남한에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RSCV) 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어떤가. 가속화된 군비확충, 미일방위협력지침, 전역시사원망화(TTM) 구상, 군사정보위성 발사사실 기거화 등 군국주의적 군사행동을 벌이며 한반도 위국면들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의 '자주권'을 내내리는 것은 결국 민족공멸의 길인 '전쟁'을 허락한다는 뜻과 무엇이 다른가?

▲노예는 자신이 노예임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인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통일'의 문제, '민족자주'의 문제를 유린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데 김대중 정권은 민족의 힘에 의한 역사적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사회부장

외대학보 61기 '수습기' 모집



모집대상: 99학번 새내기
모집기간: 3월 16일 (수)까지
모집장소: 간담회 및 면접
모집부서: 대학부·사회부·문화부

신진부·학술부·광고부·민회부

문의: (서울)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용인(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민중자주인론 외대학보

● 특급 삭감투쟁에 추가되어야 할 것

기성회비 납부 반대만으로는 한계있어

수업료 삭감, 주한미군 철거 투쟁 추가 필요

용인배우터 20대 총학생회건설과 함께 지난 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기성회비 반대 '등록금삭감투쟁' 민중생존권쟁 투쟁은 개강을 기점으로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재단과정과에서 양배우터 공동연대투쟁을 벌이지 못해 누락된 19대 총학생회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이 해소되어간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는 그동안 총학생회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머무르지 않고 단체화석회, 과학생화회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학생,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시국의 투쟁상과로는 민주납부에서 공학 승소의 과정까지 '등록금삭감투쟁'이 한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첫째, 등록금삭감투쟁은 '개척적기성회비 반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금 중 기성회비(아문계열일 경우)

34.3% 수업료는 나머지 65.7%를 차지한다. 좀더 살펴보면 10년동안 물가인상을 뛰어넘은 해를 제외하고는 등록금이 인상되어 왔는데, 이는 현재의 등록금삭감투쟁이 기성회비납부반대투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업료 반대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총학생회는 기성회비 반대투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 투쟁이 승리한다면 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요구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월 적립금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회비납부 반대투쟁을 이월적입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또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총학생은 교육재정을 사회적으로

확보하는 책임있는 당사자이고 재단이 대학발전을 위해 투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 하도록 현재 의존율이 0%로 극히 낮은 재단전입금을 늘려야 한다.

둘째, 공학부부터다. 공학은 기성회비를 낸 나머지 등록금을 총학생회에 납부(민주납부)하고 총학생회는 자체 명의로 법인 등록금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공학이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민주납부를 하고 법원에 공학을 신청하기만 하면 대학공과 재정은 운영이 어려우므로 법원으로부터 돈을 찾기 위해 소송을 걸면 총학생회가 결과적으로 승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와 정부의 유착관계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모순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를 감안한다면 공학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용인총학생회의 등록금삭감투쟁도 수단을 방법론을 가리지 않는 정부와 재단의 횡포에 실

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공학투쟁을 전개할 때에도 상당한 학우지지기반과 학생의 조직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과단양를 더욱 강화시켜 정계 행을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등록금삭감, 주한미군철거를 통한 교육재정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정부예산 중 국방비가 40%를 차지하고 그중 대부분이 주한미군주둔비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주한미군주둔비 삭감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인배우터 총학생회는 기성회비반대로 수업료삭감, 주한미군철거를 통한 교육재정확보로 등록금 삭감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용인배우터 학생들의 등록금삭감투쟁 열기와 적극적요구는 투쟁의 흐름으로 크게 자리잡았다. 이 투쟁이 단순히 기성회비 납부반대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우혜나 기자



안고있는 전방

지난 2월9일(화) 교양관 로비에 설치된 50국채널 위성방송이 동시에 방영되는 CATV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각각의 위성방송을 접할 수 있는 이 CATV는 지난 입시철에 지원자의 입시현황을 알리기도 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CATV가 교양관을 꾸미는데 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CATV는 시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측의 예산절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학대인들이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청하기 가능한 CATV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효정 기자

"위화감 조성을 넘어 교권침해로"

대학당국은 올해부터 기존의 상대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학기부터 교수들이 성적을 입력할 때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생 성적을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상대평가제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교수들은 "일부 교수들이 학생을 지나치게 잘 주는 경우가 많아 특정 과목에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편향을 시정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과 수강인원의 편중현상이 적은 전공과목과 같은 경우 상대평가제도를 그리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지나치게 편향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교수의 경우 학생을 주는 것은 교수의 고유 권리임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노력(성공경쟁제)은 "학생은 교수의 평가에 따라 주는 것인데 상대평가 제도로 인해 너무 엄격하게 학생을 나누는 것은 교수자랑이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이보다 심각하다. 상대평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낮은 학점을 받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신에 따라 저수 학생이 신청하는 과목과 많은 학생이 신청하는 소위 인

기과와 학생 수 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비교적 기본 지식이 필요한 과목에 단순한 관심만으로 수강 신청하는 학생을 줄여줄 것이다. 따라서 교양과목의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전공과 연관관계가 있는 과목만을 골라 듣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선·후배 및 동기간의 위화감 조성이다. 무조건 등수에 따라 학점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제도에서는 절대평가에 비해 서열간의 경쟁심이 강화된다. 이러한 상대평가 제도에 대해 김비은(심경·경영 4)군은 "학교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한다. 그러나 상대평가제도가 학생들의 절대적인 학습동기를 단속시킨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학점을 받자는 마음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열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사·사·사·사·사)은 "학교측의 상대평가 강화는 학생들에게 결코 이로울 수 없다"며 "출석율과 평가도가 비슷한 경우에도 학점이 벌어지게 되는 상대평가제도는 불공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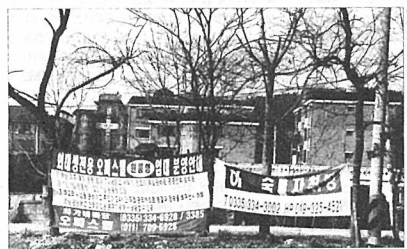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는 학생들이 학점 잘 주는 곳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만, 교수와 학생에게 그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므로 그 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류재식 기자



젊어서 고생은 자취·하숙생만 한다

총학, 등급제로 시정조치...대학당국 지원 뒤따라야



용인배우터 모현자취촌문제도 지방 학생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는 '대학은 학생' 요구를 넘어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85년 3월 중경 모현자취촌은 학생들이 고교에 거주함으로써 학업과 생활을 연계, 대학에 형성해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숙사 수용인원은 전체 학생의 1/10에 그치고 있고 이러한 혜택

을 받는 학생은 극히 일부이다. 특히 지방학생들이 기숙사 입사를 못할 경우 이들의 자취나 하숙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현자취촌은 입주자들이 많은 학생들을 받기 위해 방만 많이 지었음 뿐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또 열악한 시설에 비해서 가격은 턱없이 높다. 이에 대해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정은하(자·생명 4)는

공학 4)은 "청주대의 경우 1년에 70만 원정도로 원룸을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다"며 "3년동안 자취를 했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학교측은 수수방관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정은하 "집주인들, 학포도 계약금을 못받는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모현자취촌의 또다른 문제로는 정보가 불충분한 것이다. 모현자취정보기구를 통한다면 학생들은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가격과 나은 시설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취자취촌의 불충분으로 인해 타인 없이 학생들은 입주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예훈(자·생명공과 4)은 "해와와 불은 벽보만으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하더라도 예약에도 없었던 세금을 요구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전 학원자취촌추진위원회위원장 유영준(자·생명 2)은 "반면에 모현자취촌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 입외대로 등급을 정했다"며 "이제 준비 단계이지만 등급제를 실시한다면 총학생회의 자체적으로 모현자취촌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동국(자·생명 4)은 "모현자취촌 개선 전략을 위해 모현자취촌센터 건설을 예정"이라며 "자취생들의 불편사항과 발의 이를 적극할 것이다"고 답했다.

우혜나 기자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VISION

세계화시대를 맞으면서 자부심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 최우선 국제대학·교육개혁 세계화분야 최우선대학으로 선정되어 특보인력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요요로써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해외 44개국 76개 명문대학과 교육교류를 통해 학점 상호 인정 및 정보·자료의 교환체제를 갖추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어와 지역학 중심의 특성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대생이면 누구나 하나 이상의 실용 외국어에 능통하게 됩니다. 지역학에 능통한 외국어학도 외국어를 잘하는 인문·사회·경영·자연·공학도 외대 특색화의 목표입니다.

무한경쟁시대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어 전공학과는 물론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를 정착시키고 장학금 및 학자금 유치를 신장시키는 세계적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21)를 향한 2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명문대학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캠퍼스: 130-791 서울 서대문구 동대문로 270 전화 02-961-4114
용인캠퍼스: 449-791 경기도 용인시 보문로 188 전화 0335-330-4114
인터넷주소: http://www.hufs.ac.kr

'99 군장학생 모집

(학군, 학사관)

1. 모집인원: 1학년(10명), 2학년(10명), 3학년(10명)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77, 10, 1-83, 10, 1층) 나. 3년제 대학(76, 10, 1-82, 10, 1층) 다. 성적우수 3대 3대 3대 3대 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1학년 학기별 성적 80점 이상인 자 아. 전과자의 토목학과 재입학을 받은 수 있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9. 3. 2~3(3)(학군단 생활관)

1차 (외국인)	2차 (내국인)
1. 외국어(영어) 100점	1. 외국어(영어) 100점
2. 외국어(영어) 100점	2. 외국어(영어) 100점
3. 외국어(영어) 100점	3. 외국어(영어) 100점
4. 외국어(영어) 100점	4. 외국어(영어) 100점
5. 외국어(영어) 100점	5. 외국어(영어) 100점
6. 외국어(영어) 100점	6. 외국어(영어) 100점
7. 외국어(영어) 100점	7. 외국어(영어) 100점
8. 외국어(영어) 100점	8. 외국어(영어) 100점
9. 외국어(영어) 100점	9. 외국어(영어) 100점
10. 외국어(영어) 100점	10. 외국어(영어) 100점

▶ 구비서류

4. 선발방법

▶ 1차: 수능성적(40), 대학입학(10), 재입학(30), 재입학(30)

▶ 2차: 재입학(30), 재입학(30), 재입학(30)

5. 합격자 발표: 1999. 8. 12

6. 특권

▶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3대'를 부여, 전액 지원

(학사관 후보생으로 지원)

▶ 지방 및 전국 3대 3대 3대 3대 3대

▶ 전액 지원 3대 3대 3대 3대 3대

7. 문의 전화: 서울 (02)961-4112, 용인 (0335)330-4149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2000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

1. 모집인원: 0명

2. 지원자격: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2000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

1. 모집인원: 0명

2. 지원자격: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 2년제 200명 졸업생 중 100명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검토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동력, 외세의존적이고 민족중재적인 개발패도는 실패했다

2

여러 경제발전 모델을 고찰한다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제발전모델이 현실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자립적 민족경제모델을 분석한다

앞에서 분석했던 많은 경제발전패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자립적 민족경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4

제3세계 경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제3세계 민족, 민중이 지구화, 세계화의 압박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발전노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5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안을 모색한다.

총체적 경제 파탄!

그러나 대안은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다

지난해 남한 사회가 경험한 집권당 해탈점은 왜곡된 성장의 신화가 붕괴되는 거대한 파멸을 이끌었다. 관료들은 자본의 시대에 그 거품의 광기로부터 자유로운 처지라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특이나 동아시아는 그 패배가 집중되어 그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신화적 명성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채였다.

세계 곳곳에서 혐오스러운 한국인(Ugly Korean)의 침습(?)을 함부로 받으며 또다시 한국인들한테 이러한 모델은 참기 힘든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한과 동아시아의 위한 발전 모델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이러한 상황에 처할 운명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잘못 운영한 데서 온 일시적 정체 때문인가? 이에 대한 결론은 어려움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동아시아의 재기 가능성과 역동성의 여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에 달하는 과정은 바로 제3세계 민족, 민중의 진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초심으로 될 것이다.

시장친화적 동아시아 모델론

93년 세계 은행은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을 크게 경제 기반의 구축(Fundamentalism or 'Getting the Basics right')과 선택적 개입(Selective Intervention)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건전한 경제 기반의 구축이라는 특징과 관련하여, 세계 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재인플레이션, 소규모 재정적자, 높은 저축률), 인적 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 재정정책의 안정성, 효율성, 가격 왜곡의 제한, 외국기술에 대한 개방 그리고 농업 발전의 6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선택적 개입(시장 친화적 개입)은 시장 인센티브(유인책)를 변경시키는 정책 조치와 수출 부문에 강조, 간접세, 신용감독, 선별 지원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이중 성공적인 것은 '수출주도산업화(出口 주도)'였다고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지지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시장 친화적 개입은 다음의 3가지 형태를 띠 수 있다고 한다.

- 1) 국가가 '시장에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면서, 부족이한 경우에 개입한다.
- 2) 국가가 '국제 및 국내시장규율'에 개입을 종속시키면서 전체와 균형을 기한다.

3) 국가가 공개적으로 개입하며, '책임자의 재량'이 아니라 '준칙'에 따른다.

이러한 개입은 결국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수출주도산업화(세계 시장으로의 통합)라는 틀 내에서 수정되거나 통합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세계 은행은 이와같은 경제기반강화정책(Fundamentalism)과 수출주도산업화를 제3세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제기하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미래를 밝게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세계 은행의 전망이 97년 일련의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로 재등기 되었다. 실제로 세계 은행의 주문을 수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이어 위기 상황에 놓이고, 그 정점에 있다고 평가되던 일본마저 그 충격 여파로부터 헤어나질 못함에 따라 그 전망적 정책의 진화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방 독재 모델로서의 동아시아

이에 대해 세계 은행의 동아시아 진단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종하여 세계은행의 정책을 수용하면, 이는 오히려 동아시아(모델)의 해체와 역내 국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존재한다.

즉,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권위주의적인 국가개입에 의한 후발산업화로 전환, 금리, 물가 등에 대한 시장 개입과 가격 왜곡을 통하여 국가가 투자수익의 효과적 조달에 성공한 것에 기인한다. 나아가 국가는 이자율과 무관하게 높은 저축율을 기반으로, 투자 인센티브(유인) 제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빌릴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고속성장정책의 동력에서 '권위주의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결과 이같은 입장에서 볼 때 '시장친화적 개입'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주장은 틀렸고 동아시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론적합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이고 교조적인 나르시시즘일 따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동아시아는 일본을 추격하는데서 단위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동 시장의 경쟁 강화를 통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시장방화벽을 통해 동등비용을 감소, 경쟁력 향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입 입장을 결과론 비교하여 시장친화적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왜곡일 따름이었다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 모델의 본질 - '탈국민적 자본유치국'

이와같은 발전 경로를 걸어 온 동아시아가 자기 발전의 중요한 열쇠인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그것을 축소하기 시작할 때, 동아시아의 미래는 그 잿빛 본질을 뚜렷히 드러낼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이론을 수용했으며 그에 따라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개방화, 자유화에 나섰는가하는 점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시장친화적 모델의 본질을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하도록 하자.

시장친화적(개입)모델이라는 것은 실상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시장친화적 개입이 강조하는 '수출주도산업화'야말로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의 고리이고 세계적 자본 유동성의 고리일 따름이다. 이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구화-세계화 과정 및 이른바 지구적 자본주의의 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세계적 자본주의의 독점자본의 전일적 지배체제로 만드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작동하는 가치 법칙과 경쟁 논리에 모든 국민경제를 함몰 종속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제일 따름인 것이다.

이는 결국 자국자본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그리고 자국 자본 중심의 발전 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본의 국력에 상관없이 어떤 자본든지 자국 영토로 자본을 최대한 유치해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분배 폭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는 '탈국민적 자본유치국' 모델의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일 따름이다. 특히 세계 은행이 1993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정식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탈국민적 자본유치국'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유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었다.

이는 한편으로 90년대 들어서고 고도성장 신화의 지속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신자유주의적 돌파'라는 전망이 미끼로 작용했다. 그 미끼를 아무 생각없이 덥석 붙들던 것이 김영삼의 자본 자유화 정책이었고, 그 후가 바로 IMF관리체제인 것이다.

본질점에 놓인 동아시아, 그 대안은?

사실 동아시아의 경우 '외세 의존적이고 민족중재적인 개발패도'를 발전의 동력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은 개발독재체제는 소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실증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하기는 경제 성장과정에서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 자립적 분별방위 제, 반



독재적 요구가 강요해진다라는 점이다. 다음은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상황에서 후발 수출주도 산업화의 추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중국의 추격) 끝으로 소위 선진 자본주의국들의 경제가 심해지고 역의 압력과 침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개발독재 모델은 일정한 성장과 발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각각의 국민경제를 전지구적 생산의 리와 세계시장에서의 무관결정 논리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한 세계화-지구화가 가하는 거대한 압력에 굴복하여 '탈국민적 자본유치국'로 방향전환하든가 아니면 '국민적 경쟁국'을 성립시킨 발전의 동력 즉 개발독재를 고수하는 두가지 전망 모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이 양자 중 어느 것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유추해 주는 것이 아님은 참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같이 자본 축적의 기반과 기술집약도와 미약한 경우 '탈국민적 자본유치' 전략이 의미하는 것은 국민국가를 해체하고 식민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따름이다. 다른 한편 수출주도산업화를 추구해 온 동아시아에 이같은 발전 전략을 선택한다는 전략이 의미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자본이 주도하는 거대한 세계화, 지구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택지이다. 협소한 국내 시장과 높은 대외 의존도 그리고 허약한 국내의 정치 기반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선진 제국들의 용인이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동아시아의 성장은 세계 자본주의의 체계적 구조적 불황의 불균등적인 전개와 그 구조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에 역설적으로 (일본자본주의의 변형과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대적인 자본진출에 크게 힘입는 가운데) 수출지향적 전략 추구에 유

리한 국제적 환경을 맞이함으로써 가속화한 것이었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자본주의의 체계 동향과 무관하게 독립한 동아시아 신화를 내세우며 허장성세하던 우리가 자본 운동의 역전축 변화로 손쉽게 IMF관리하에서 해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순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발독재한 동아시아 모델은 수출주도산업화라는 외부지향적 즉 대외 의존적 발전 경로의 자체 속성 때문에 세계 경제의 총망상이라는 주기의 세계 자본 운동의 역관계에 철저히 연동되어 움직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모델은 한 때 고속성장의 신화를 달성하는 듯 하다가도 또 한 번 순간 바닥에 떨어져 붕괴적인 상황으로 내 몰리게 하는 그런 유희하는 체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체제가 가지는 불안정성과 대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전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적 주권보다는 경제적 먹고살기를 중시하려는 실용주의적이고 소위현실적 가치관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 5년동안 천문학적인 외채를 빌려다 쓰면서는 너무나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소비주의의 조장이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한물간 경제사상의 발로였던 때문이다. 동아시아 모델은 결국 민중탄압 개발독재로 시작해서 대외의존 부정부패로 귀결되는 발전노선일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제 3세계 민족, 민중이 제국주의의 지구화, 세계화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발전 노선과 전략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찾아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된다.

이재호
(세종특별자치연구소)

사이버 목장의 결투

살아남는 자에겐 8박9일간의 지구여행

네트워크의 기본소통을 제대로 갖춘 자, 게임에 관한 한 동등하리만 사온 정도의 실력을 뽐내는 자 스스로 인터넷에서 가장 재주 좋은 플레이어라고 믿는 자 -누그러도 좋다. 마지못해 끌어안는가!

사이버 철인5종 경기

■ 게임운영방식...

- 제1-제4라운드 각 팀사비(팀) 내부투표, 유선, 전화, 인터넷으로 발표하며, 제5라운드 최종결과 발표한다.
- Korea-Down 방식에 제1라운드부터 제4라운드까지 100명씩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 팀의 100명 참가자를 Team Menu에서 10명씩 선발한다 (10명씩 선발한다)
- 100명 선발된 참가자를 Team Menu에서 10명씩 선발한다 (10명씩 선발한다)
- 100명 선발된 참가자를 Team Menu에서 10명씩 선발한다 (10명씩 선발한다)

■ 행사내용 및 상품

라운드	행사명	기간	인원	경품
1	019 BNGO!	3.5 ~ 3.15	3000명	문화상품권
2	인터넷을 찾아라	3.20 ~ 3.27	1250명	문화상품권
3	인터넷을 찾아라	3.31 ~ 4.6	750명	문화상품권
4	인터넷을 찾아라	4.10 ~ 4.21	1250명	문화상품권
5	인터넷을 찾아라	5.2	250명	문화상품권

■ 행사후에 LG Telecom에서 사립정당 단체 참가자들에게는 8박9일간의 지구여행을 위한 상품권을 제공한다.

FRESH 대축제(3.31)

● 신구간에서 3월 31일(토) 저녁 8시에 LG Telecom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 '신구간'에서는 LG Telecom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 '신구간'에서는 LG Telecom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 '신구간'에서는 LG Telecom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성폭력 사건을 진단한다

외대는 성폭력 사각지대?

언어폭력 · 성추행 등 학내에서 비밀비재...

얼마전 이부옥(28)씨는 큰일을 치렀다. 컴퓨터 통신과 이동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계속하여 욕설과 심한 성적농담을 보내오던 가해자를 고소한 것이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지난 2월 우리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강도준이었다. 강준의 존재를 전혀 모르던 이씨는 통신상으로 강준이 '비친야', 'X이나 빨리' 등의 음담패설을 계속 보내오자 메일을 보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준은 그 후에도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로 하하하와 밋밋한 헐리와 욕설을 보내왔다고 한다. 상대방 이동전화번호를 몰라도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통신상의 메일전송서비스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성폭력특별법 제 14조 '별도권, 통신음란죄'에 의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청에 강준을 고소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외대인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또 있었다. 서울배출터 여학생위원회에 걸려온 전화를 의뢰한 지난 2월 13일 밤 대학교 근처를 지나던 이씨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도망가던 가해자 두명을 잡는 도중에 오히려 머리채를 잡히고 발길로 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112 신고를 통해 동대문 경찰서에서 앞

아본 결과 가해자 중 한명이 외대 1과 2학년 5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왜 가슴을 치고 도망 갔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가해자 학생은 "밤에 일어나는 여학생이 싫었다"며 오히려 "다른 여자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들이 계속에게 걸렸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28일에는 서울배출터 학생회장 여학생 사위살인 사건 한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던 외대생이 지나가던 학생에 의해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앞에 열거한 사건들은 학내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우리 학교 학생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이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인배출터 총학생회장 안은성(사학·영어 4)은, "언어 폭력, 성추행 등 대학내에서 또 저지른 성폭력 사건들이 벌어진다. 단지, 피해자조차도 여학생이라는 것을 두려워 해 잘 말하지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와 달리 가해자들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

부분이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누군가가 나를 계속 감시하는 듯한 느낌에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어려울 정도였다. 전연 화났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외출하는 것도 많이 꺼려질 정도"라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 이부옥씨의 말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성폭력 사건은 육체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야 용기를 내어 고소조치한 이유는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언제까지 덮고있고 참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내 또는 그의 대학생활기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는 이제 오솔의 일 아니냐.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산 동대문 경

우는 '여성연대회' 같은 여성단체와 연대해 학내에서의 언어 폭력, 강제 추행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했다. 또한 우리학교 양배출터 여학생 자치기구에서 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식변화 일 것이다.

"빈번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올바른 성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억압적인 성교육을 받아 온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에서부터 성폭력 반대 버튼 달기, 선전 등의 사업을 통해 왜곡된 성윤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는 총학생회장 안은성 양의 말은, 성폭력이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해준다.

정서우 기자

생활 시평

“새내기엔 외로워”

나는 새내기다. 그런데 나는 고독할 뿐이다. 텔레비전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정도 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다. 하지만, 내가 대학에 와서 느끼고 접한 것은 혼자라는 것이며, 뭔가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

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개강준비 자료에는 160여명의 우리 새내기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선배들은 기껏해야 20여명. 학부제 때문이라고 한다. 딱히 내 후배 같지가 않아서 다른 과로 가 버리면 그만인 후배라는 생각에 선배들은 우리 새내기에게 무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부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1학년 때는 내 적성에 맞는 과를 맞출지 두루두루 접하면서 2학년과 3년을 선택한다는 학부제가 나의 대학생활 시작을 이렇게 암울하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무서워한 것은 학부제도 아닌 다른 과 내 친구의 고독함이다. 그러는 불행이 전해 오며 심하게 '재수'를 고민하는 내 친구 말이다.

학교나 과가 맘에 들지 않아 재수를 하겠

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대학생활을 접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사는 사람도 없는 데다 과라고 선배들과의 지리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방과후에 함께 모여 잔디에 둘러앉아 게임이라도 하는 등의 그런 할배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선배들은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법을 터득했나보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양식으로 말이다. 함께하는 것은 구식당파라는 것이고 쓸데 없는 사람사귀는 귀찮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광란의 대학생활은 정말이지 하고 싶지 않다. 당당히 요구하고 싶다. 선배들! 우리 귀여운 새내기들이랑 함께 해달라고 말이다. 노천 바닥에서 잠이 들어도 소수 한두 명이라도 진지한 얘기가 하고 싶고, 과학생활은 새내기들이 할까 어울리며 대화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행사 등을 마련해 달라고 말이다.

요즘 교정 곳곳에 흩어져 혼자서 아니면 둘, 셋씩 둘둘나며 방황하는 우리 새내기들을 이제 그만 방목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희부장

수위를 넘어서 배움터 내 PCS판권전

상행위, 한방에 학교까지



"무로 통화도 걸릴 수 있는 이번 기회에 PCS 가입하세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제법 화려한 물리는 확성기를 들고 나온 도우미들이 조용한 배움터 안을 뒤흔든다. 요즘 용인배출터 후생복지관(후복관) 앞에서는 때마침 이 동향과 판권전 경쟁이 벌어졌다. 세터에 한층을 해준 명목으로 한층PCS에서 학내 홍보전을

시작하자 이에 뒤질세라 후복관내 전자매장에서도 사들여 비슷한 판권전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 이를 바라보는 다른 구성원들은 "학교가 시장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시끄럽게 판권전 베풀기 장사를 하는 것이 거부감이 든다"는 조경진(자연·환경 3)이나 "좀 시끄럽긴 하지만 학내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좋다"는 김지현(사학·영어 1)처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학내에서 기관마다 설치해 상품판매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어교재, 통신서비스, 호환기 등 지금까지 여러가지 상품 판권전이 있어 왔고 이는 다른 학교에도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학교 밖으로 나가서 불편하고 심지어 거의 형식적이라 이제 용인배출터의 한층을 감안한다면 용인 배움터 부부전역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의보다는 업자의 이익만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배움터내에서의 상행위나 과한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처럼 크게 음악을 트는 등 배움터 분위기를 소란하게 하는 데서는 더욱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종범(인문·철

학 4)은 "협한 받은 조건으로 배움터내에서의 상행위를 승인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는 협한사와 계약시 이런일이 없도록 잘 조율해야겠다"라고 정한다.

서울배출터의 경우 외부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학생자치기구인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용인배출터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업자의 상행위는 생활활동조(생활)에서 조합의 주주인 직원, 교수들만이 이루어진 상인사들의 허가 아래 진행되어왔다. 그 중에서는 호환기 판매 등 업자의 영리만을 위한 것들도 있었다.

대학은 영리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고 나눔의 공동체적이고 개성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사회'인 것이다. 그 공익이 부분적인 이익추구에 의해 타락하지는 않는다.

특히 학기초가 되면 더욱더 극심해지는 배움터내 상행위, 단순히 '판매해서 좋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배움터를 방탕하고 있다. 업자의 돈벌이를 위한 불합리한 판매방식 하에 구수원 모두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서우 기자

너비니는 블로그의 댓글입니다



<영향로 읽는 텍스트 문화 - 달콤쌔름한 초콜릿 I

신비주의가 숨쉬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달콤쌔름한 초콜릿"은 분명 비극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섹스페리어가 "어린왕자"를 꿈과 감수성을 잃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듯이 텍스트 스타일이 가벼워 성인용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들은 이 영화를 보고 신비력과 동화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학대받는 딸, 하마로 사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신비력이라고, 그녀의 유모차 가장부 나치는 필요한 시점에는 언제나 나타나지는 동화속의 요정이다). 한편 동생의 연인을 맺어 가 것을 말한다.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고 죽은 어머니가 유령으로 나타나 딸을 괴롭힌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잠복인 알론소 아라우(아니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 내거나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 이런 기법이나 사투는 사실은 중남미의 자연이나 문화적 풍토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음식의 맛과 관련하여 알아낸다. 이것

의 알론소는 아마도 사랑하는 연인이 건넌 초콜릿을 만든 요리사인 것이다. 때때로 사람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에 안니는 주체할 수 없는 격정에 휩싸이고, 마치 그리스 신화의 사티어(노래대신) 남자를 유혹한다. 아마도 그녀가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으로(몸은 조금 풍동하다) 달려가 혁명 군대장의 방에서 올리타는 장면은 두근두근 신비력이라고, 그녀의 유모차 가장부 나치는 필요한 시점에는 언제나 나타나지는 동화속의 요정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매직(magic)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처녀가 젖을 먹인다.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고 죽은 어머니가 유령으로 나타나 딸을 괴롭힌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잠복인 알론소 아라우(아니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 내거나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우리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중남미의 미술품사실주의(Magic Realism)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달콤쌔름한 초콜릿"은 중남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주술적 세계, 또는 신화적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매직은 나와 너, 자연과 인간, 신과 인간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시킨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나는 이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apart) 존재가 아니라 압연(압연)이 세상의 한 부분(part)을 이루고 있다는, 소위 신화에서 말하는 화해와 동질성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비합리적인 것들을 믿고 안 믿고의 자아의 자유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아름답고 또는 진실이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싶고 싶은 것이다. '달콤쌔름한 초콜릿'의 미미(미미)가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정철

(서비아어과 강사)

영대문화마

우리언론의 숨겨진 신화 깨기

김영기 지음
한겨레신문사 8,500원

출중 19년

서승욱 지음
역사비평사

미아리 오름

문예 923-1000
관람료 정액 10,000원
주말 15,000원

예술극장 앞에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아리 오름'이라는 공연을 갖는다. 연극, 무용, 미임, 퍼포먼스,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를 한 공간 속에서 즐길 수 있다.

토, 토요일의 경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일 두시간 동안 공연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지난 독재 정권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다.

저자 김영기 교수는 한국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별표 자널리즘'이라고 지적한다. 정권이 발붙여 몸집을 불려온 제도 언론의 안보 상업주의 등의 모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파헤친다.

지난 2월 우육각체 등 비정규직자들이 석방됨에 따라 언론은 마치 '양심수 없는 나라'인양 떠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71년 '제일유한선' 간첩사건에 회피한 19년 동안 목숨을 한 세 승 씨가 쓴 책이다.

광자는 사상정환제도나 준비사역사로 발원 바뀐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상의 자유는 소위한정간첩과 비정규직자들에게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8월(토) 9월(토) 10월(수) 11월(목) 12월(금) 13월(토)

신명정 열매 (사건) 연설 정기공연 (자연대 강연) 학교문화제 동대문 문화비포스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분	학 생			대 학 원 생	
요일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품요리
월 (8월)	북어국밥 (₩1,500)	콩나물비빔밥 (₩1,300)	불고기밥 (₩1,500)	두부해물국 (₩2,300)	애호박김치찌개 (₩2,500)
화 (9월)	콩나물국 (₩1,000)	육개장 (₩1,500)	탕수육밥 (₩1,500)	전세우어국밥 (₩2,300)	치즈프리카레멜 (₩3,000)
수 (10월)	애호박김치찌개 (₩1,300)	참치김치볶음밥 (₩1,400)	해물김치밥 (₩1,500)	두부김치국 (₩2,300)	낙지볶음밥 (₩3,200)
목 (11월)	소고기국밥 (₩1,500)	오장어숙회비빔밥 (₩1,300)	시골우거지국밥 (₩1,400)	육개장국 (₩2,300)	오동대이스 (₩2,500)
금 (12월)	무연어국밥 (₩1,000)	장미밥 (₩1,500)	돈육볶음밥 (₩1,400)	강제다시마국 (₩2,300)	자장면 (₩2,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분	이 문 관			후 복 관		
요일	중식1	중식2	석식	조·중식	석식	팅팅
월 (8월)	배달의민족 (₩1,400)	사리곰탕 (₩1,400)	광복제비빔 (₩1,400)	소고기국밥 (₩1,400)	배달의민족 (₩1,400)	선전단 (₩1,400)
화 (9월)	죽국 (₩1,400)	닭국 (₩1,400)	닭국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간지단 (₩1,400)
수 (10월)	김치국 (₩1,400)	삼계탕 (₩1,400)	참치김치찌개 (₩1,400)	참치김치찌개 (₩1,400)	참치김치찌개 (₩1,400)	순대국밥 (₩1,400)
목 (11월)	콩나물국 (₩1,400)	시골우거지국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금 (12월)	장미밥 (₩1,400)	선전단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배달의민족 (₩1,400)

특별기고-조선일보의 '한자병용학론'에 반대한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한자병용?

우리말 바로쓰기, 실업·분단문제 해결 우선

〈조선〉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조선)이 이 말도 '삼일'이라고 쓰고 싶어 안달이 나겠지! 『漢字 병기』란 글을 실었다. 세 권 모두 하찮게 보아도 못한 글이지만 그 가운데 셋째 권, 마지막 글을 들어 보겠다. 마지막으로 쓴 글인 만큼 '무슨 주장'이든 위든 의지거나 줄여 말하지 않겠는가?

가. 한자말 167 낱말 가운데

한자말을 한글로만 쓰거나 한자·한글·한글로 쓰는 것. 〈조선〉이 말하는 그 '한자병기'를 한 낱말이 아니라 되는 지 해라 했다. 그 가운데 보기로 들어 '한자'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11 낱말을 빼고 보라.

- 한글로만 쓴 한자말 : 164
- 한자·한글로 쓴 한자말 : 2
- 한자·한글로 쓴 한자말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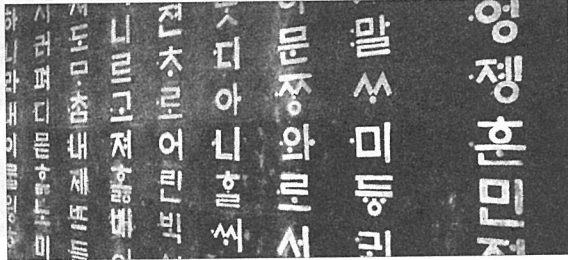
그러나 낱말 하나만 빼면 나머지 166낱말은 한글로만 적어도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소리다. 보기로 든 낱말까지 쳐도 164 : 12다. 이렇게 해도90%이상(퍼센트)가 넘는 낱말이 우리 글자인 한글로만 적어도 읽는 데로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다.

나. 〈조선〉 말대로 한 번 써 보겠다

11월 오호, 한 라디오 방송에 초대된 유명 체육인은 인터뷰 중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모범"과 비슷한 말쯤으로 추측한 듯했다. 한자를 모르면서 한자어를 써야 하는 한글세대에게 이런 오용(誤用)은 속병적이다.

"오용" 한 마디만 잘못 속에 넣은 첫 대목이다. 이를 〈조선〉 말마따나 한자를 함께 써서 볼까?

11월(日) 오호(午後), 한 라디오 방송(放送)에 초대(招待)된 유명(有名) 체육인(體育人)은 인터뷰 중(中) "후배(後輩)들에게 귀감(歸鑑)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모범(模範)'과 비슷한 말쯤으로 추측(推測)한 듯했다. 한자(漢字)를 모르면서 한자어(漢字語)를 써야 하는 한글세대(世代)에게 이런 오용(誤用)은 속병적(宿病的)이다.

이렇게 쓰니 글 길이가 무려 50문자(퍼센트)가 늘어났다. 한글로만 써도 알아듣는 '모범'이 아니라 '귀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란 다행(多幸)일까? 쉬운 말로 쓰면 얼마나 좋은가. 〈조선〉이 쓴 말을 살가운 우리말로 풀어 보겠다.

11월 낮에 라디오 방송에 나온 잘 알려진 체육인은 예기(豫知)하다 "후배들에게 훌륭한 선배(先輩)이고 싶다"고 말했다. "모범"과 비슷한 말로 본 듯하다. 한자를 모르면서 한자어를 써야 하는 한글세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잘못 쓰고 만다.

살갑게 손보면 글 길이가 짧아진다. 왜 그런가? 살가

자 보자. 어린이에게 '부모'를 가르칠 때 '부(父)' + '모(母)'라서 '부모'라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아버지' + '어머니'를 합쳐서 '부모'라고 가르치는가? 〈조선〉 말대로라면 이런 아이도 한자로 '부(父)'와 '모(母)'를 가르쳐야만 어린이에게 '부모'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공상(公相) 아이부터 좋아 보라. 그 아이들은 '부모'라 하면 그저 '부모'인 줄 안다. 길을 가다 "아빠 아버지 뭐야?" 할 때 "응, 문방구야" 하면 "응 그대, 저거저거 문방구라고?"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 아이는 문방구(文房具)라 해서 '문방구'를 알아먹지 않는다.

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을 돌아 보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글자 싸움이 아니다. 우리 말과 글을 갖고 있는 비영어권 말과 어려운 한자말과 어색한 음김(音金) 말과 기술 말, 과학 말, 정선(正善)을 비롯해 온갖 말을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익히도록 정리하고 다듬는 일을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듬거나 새로 짓기까지 한 말을 낱말(辭)에 담기도 해야 하며 이러한 일을 학문으로 갖고 닦아 바로세우고 대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 문화를 복돋우며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히게 하도록 공사(公事)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러워 쌓여 있다. 지구(地球)를 떠나거나 때를 거스르며 나라를 옮겨다니는 곳에 흩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쓸 돈이 많으면 실직(失職)을 살려내고 무너진 여름(여름)을 일으키며 남과 북이 하나되는 일을 돈에 맡겨야 한다.

최정규

(서양·네덜란드 4)

우리말 슬러시

순환도로→나들목

세로 말을 짓는 것을 읽고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한층 더 나은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교통(交通)을 살피면 '것길'이라는 말이 나오니다. 길살피는 말도 있고요. '노선'이라는 일본 한자말을 끌어들여도 하며 어렵사리 끌어들여도 써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것길'로 살아가게 될때 이젠 누구나 '것길'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목' '조용'도 끌어들여 '나들목'이란 말도 끌어들여 살아가는 말이 되었습시다.

서울 내부순환 고속도로 개통
서울 강북지역을 감싸고 도는 내부순환도로가 개통

그런데 신문글을 살펴나 '나들목'이라는 말은 글이름에서만 딱 한 번 쓰고 작은글 이름과 글 속에서는 '순환도로'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뭐, '인터체인'이란 말을 쓰지 않은 대목 하나를 가가이 받아들이어야 할까요?

간담록 : 길이나 다 때를 건너 다나게 되어 있는 곳
노후록 : 노후가 자주 다니는 길목/좁은 산길에서 저
오기 앞 곳

느죽 : 가벼워지고 잊었던 길이나 땅

들록 : 들어가는 것이라

외길록 : 여러 길에 걸려 있어 하나로 되는 길

조용록 : 갑자기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질 때 그 좁아진
길목

터전록 : 트인 길목이나 통로

허튼록 : 겹침이 많아질 것을 가늠할 수 없어 너른 곳

용인

문화단신

서울

연결 24회 정기공연 개최

‘김치국채 환장하다’

연극 동아리 '연결'의 스물 네번째 정기 공연 '김치국채 환장하다'가 오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자연대 강당에서 열린다.

작년 대학교 연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 작품은 한국전쟁 때 헤어진 쌍둥이 형제 각각은 많은 구두쇠와 남과전쟁의 위치로 만난다는 내용의 블랙 코미디다. 공연을 위해 두달여간 피나는 연습을 진행했다는 기획자 김형준(정비사업·재계계 3)군은, "코미디 작품이라고 그냥 웃어 넘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통일'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공연 시간은 6시, 관람료는 2천원이다.

공연, '동아리 오픈하우스' 열려

아외공연, 경품추첨도 있을 예정

오는 10.11(목) 양양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새내기 회원 유치'를 위한 동아리 오픈 하우스(OPEN HOUSE)가 열린다.

학생회관내 모든 동아리들이 밤을 개방해 새내기들이 직접 동아리 설명회 듣고 발표를 할 수 있게 한 이 행사기간에는 각 동아리들의 열띤 '새내기 모시기' 경쟁이 있을 예정이다. 연행분과(해무리, 외비기), 이웃 사이터들)와 체육분과(농구부, 헬스부 등) 동아리들은 학생회관 앞 야외 공연도 계획중이다.

그외, 베스트 팀 위스트를 선정,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 행사도 마련한다. 행사를 기획한 오영희(통영, 인문·철학 4)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내기들이 대학문화의 원동력인 동아리에 많이 지내도록 새로운 동아리 문화가 꽃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예갈래 협의회

민중가요 노래타래 판매사업 시작

문예갈래 협의회에서는 이번주부터 민중 가요 노래타래(레이프) 판매 사업을 시작한다. 한층더 문화권 보급과, 조국과 청춘, 전리마, 한반도 등의 노래타래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복제와 MP3 화질의 대중화로 인해 유품량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중가요 업계의 상황을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이문희(음동복 '진 새벽', 사회·신앙 4)군은, "새내기들이 많이 녹아 있는 민중가요를 부름으로써 올바른 지향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수익사업이 아닌 노래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원가에 판매하며, 한층더 문화권 보급 타래는 1500원, 나머지는 4천원 가량에 판매될 예정이다.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영상위원회<목요일화제>

왕산의 목요일엔 영화가 있다

여지껏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학생우들은 빈번한 문화적 혜택을 누려 보지 못했다. '중부 내륙간간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문화행사들을 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상위원회는 영화제를 통해서 왕산인의 문화적 관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화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 '수요 영화제'에 이어 2년째에 접어들어 목요일화제와 영상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영상위원회는 분산되어 있는 영화화제들과 동아리를 하나로 묶어 함께 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된다. 영상위원회의 동아리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 한나인 영상위원회의 학회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빈곤에 사달란 왕산인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 영화제는 목요일마다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시간과 작품은 매주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고 장소는 후북관 4층 소극장으로 어떠한 건물에서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다.

확실한 정보 한가지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영화에서 상영된다는 '스크림'의 후속편 '스크림 2'가 상영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적이 없는 이 영화로 스크림 1 이상의 흥분과 여러번에 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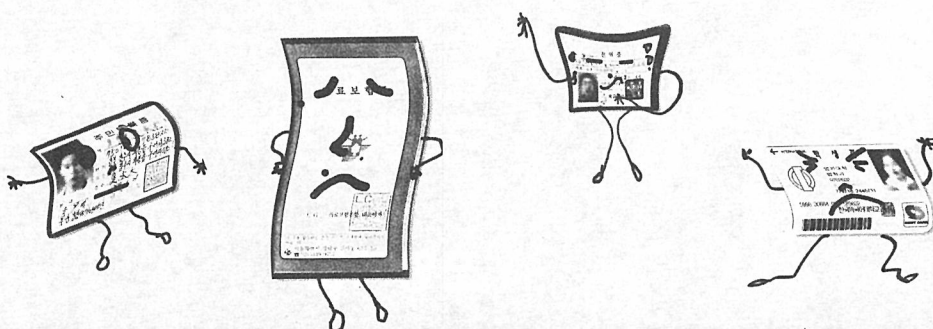
학우들의 관심만이 영화제를 발전시키고 영상위원회도 여러번에 다가가 수 있다. 자리를 가득 메워 주실 여러분에게 미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윤희

(영상위원회 권현대, 서학·목요일 4)

생활문화운동 - 본심을 찾아드립니다

날 좀 날 좀 찾아가요 빨리~ 빨리~



● 그동안 각 권 안내실에서 보관하던
본심들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보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실
건이 있으면 학생복지위원회로 찾아
오십시오.

● 회차 : 학생회관 2층
● 문의 : 961-4447

학생증 : 김명관 (동양·미인어 97)이태근 (동양·태국어 94)이도봉 (상경·무역 95)문일철 (상경계열 97)임소영 (법·법학 97) 조용숙 (대학원·일본어 98)전형욱 (서양·영어 95)김태정 (자연·화학 94)유명록 (서양·영어 94)
주민등록증 : 오영표 (750103-1785620) 전영희 : 윤영환 (군번: 96-76011005) 의로보름 : 진성준 (720324-1090313)

3·1절 반외세 민족자주정신계승 민족대회

‘민족자주’ 실현으로
국난을 극복한다

“우리는 거족적 3·1 구국항쟁의 반외세,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해 가야 우리대에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 것이다” 사진은 3·1 민족대회 모습

3·1절 80주년을 맞아, 현 시기 진정한 3·1 운동 정신계승은 ‘반외세’와 ‘민족자주’ 실현임을 천명하는 대회가 열렸다.

지난 1일(월) 서울에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중공동대위)’ 주최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와 일본의 한반도 제정복 반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3·1절 반외세 민족자주정신 계승 민족대회(민족대회)’가 그것이다.

제야 사회단체 인사들과 청년학생, 시민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의 의외에 대해 박창근(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북본부 부의장)씨는 “오늘날의 지리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난을 극복해나가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와 반민족, 반통일정책을 서슴지 않는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수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대회를 통해 “김대중 정권의 반민족적 본질은 두가지에서 드러나는데 첫째로, 미국에서 죽인 이라크를 폭격한 이후 김대중 정권이 1차로 그것을 지지했다는 것과 둘째로, 제2의 대국장 정권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라며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자주권을 의외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창근(범민련 남북본부 부의장)씨도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과 이에 동조하는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미국은 우리 민족의 생존체제를 위협하는 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일본은 사회와 배상을 통해 완전한 과거청산을 이루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

한 국공주의적 군사동맹을 즉각 종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5027 전쟁계획을 즉각 철회, 평화정착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89년 석방된 장기수 윤희보씨는 국보법 철폐, 이일과의 공조파기, 전쟁열승준단과 한문연, 범민련 이적정권 철폐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김정권이 전쟁 통일을 위한다면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치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북한군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IMF정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거쳐 삼각지 전쟁기념관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권오창(민족자주평화통일연합회의 공동의장)씨는 “삼각지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사령부가 들어왔던 곳이고 지금은 반세기동안 미국이 둔한군 내지 않고 미군기지 사령부 사용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사령부를 주둔시킨 이곳에서 3·1 항일구국항쟁 정신을 계승해 미국을 물리치고 전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전 참가자들과 함께 결의했다.

한편 민중공동대위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와 경제침탈 저지, 일본의 한반도 제정복 반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3·1절 반외세 민족자주정신 계승 민족대회’를 개최하고 “우리는 거족적 3·1 항일구국항쟁의 반외세,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해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국난을 극복하고 20세기 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대에 가야 조국통일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대외통화학회(한통련)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는 “이번 공동선언은 동으로 현시기 미국에 의한 민족침탈의 전쟁책동을 막기 위해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싸우고 있으며, 조국애와 민족

인 터뷰-조계사 농성중인 우리학교 용인배우터 김대성군을 만나

“나를 뽑아준 학우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지난 97년 우리학교 경성대 학생회장이었던 김대성(경상·무예 92)군은 한총련 대의원 미탈피자로 그해 7월 수배생활을 시작했다.

올해 1월 김대성 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에 합류해 투쟁하고 있는 김군을 만나 첫수배 3년째 접어들 수배생활의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신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의 노력을 들어보았다.

“올은 것을 위해 투쟁하면서 느꼈던 승리감, 무성의 감동은 아직까지 저를 계속 지켜주는 힘이 되어, 신념입니다.”

조계사 농성단 천에서 만난 김대성군은 어떤 모습이었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나를 뽑아준다고 받아주고, 운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학우들과 약속을 지켜서야 하는 인단이다. 각으로 수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우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신념은 단언이 거저지나 거세질수록 더욱 공고해져 갔다. “그때의 약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많은 애국적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민당국을 보면서 내가 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절대 굴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배생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그는 “우선부터 가장 힘든것은 내 주

변사들에게 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라고 밝혔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먼 지방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온갖 협박과 회유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무척하게 지켜보는 것이 가장 괴롭다는 사실은 김군뿐만이 아닌 많은 수배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특히 김대성군은 얼마전 여천구립에서 도청기가 발견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김군은 수배생활과 투쟁을 적극 지원해주는 부모님 덕에 큰 힘을 얻는다. “지난 10월경이었던가요, 수배생활중에 ‘수배자가족협의회(수가협)’가 발족한다는 공고를 일간지에서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요.” 자신의 “물음”을 지어 주는 부모님의 존재가 그를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든든한 기반이다.

또한 그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 합방기도 한다. “25일날 출소하면 열명정도가 저희를 찾아 왔어요.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첫눈에 와 닿는 평가가 있어요. 이제 강릉주기도 저희를 보시자마자 무시더라고요.” 그는 이런 마음을 민중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지키려는 사람에겐 만능지팡이 “순결한 감동”이라고 표현했다.

“IMF로 휴학, 군대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김대성군

들었어요. 산배들도 돈이 없어 후배들을 피하는 경향까지 보이네요. 이런 어려움에 ‘순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투쟁하는 모습으로 이런것들을 극복해 나가야지요.”

우리학교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이야기한 김군은 마지막으로 멋진 말을 들려주며 한마디 전했다.

“신념이 강한자 앞에서는 운명도 길을 비켜나고 합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사회부

국가보안법철폐,
정치수배해제 촉구

“고통학교에 ‘수배자’나 ‘집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5일(금) 조계사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연대집회’에 참석한 우리학교 용인배우터 김대성(경상계열 1)은 말한다.

제야 사회단체 인사들과 농성단 부모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관계자, 청년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사법경찰들이 강제까지 집회하는 등 삼엄한 경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통해 강조한(민가협 공동의장)씨는 “법무부는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어주겠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정치수배해제를 사실상 상 거두고 있다”라며 “‘자수’는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정하고 선처해 달라는 뜻을 내포하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투쟁한 양심수에게 자수를 요구하는 것은 기이하다”라고 밝히 정치수배해제를 명확히 할 것을 김대성 정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97년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를 받고 있는 최원식(간대 92)군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잘 알고 있는데, 올은 것을 외친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우리학교 용인배우터 새내기 정영태(경상계열 1) 군은 “수배자 어머니님 말씀에 들은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수배해제의 부당함을 느꼈다”라며 “한사람이 이런 지위에 많이 와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범청학련 공동 선언운동진행

조국통일은 남북의 3자대표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공유하고 반미반전,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의 청년 학생의 결의를 세우기 위해 진행된 ‘미국의 전쟁책동 반대, 주한미군 철거, 90년대 연방통일조약 체결을 위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공동 선언운동’이 최종 마무리됐다.

남북의 청년학생 대표자 공동선언운동 참가자는 총 297명으로 집계됐으며, 범청학련 남북본부 221명, 북측본부 50명, 해외본부 8명의 공동선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청학련 남북본부는 서울지역 총학생회장(사총련)을 비롯, 7개 지역청련의 60여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북측본부는 12개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38개 대학학생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선언에 참가했다. 해외본부도 본부 공동의장과 사무국장, 중앙위원 8명이 선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대외통화학회(한통련)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는 “이번 공동선언운동으로 현시기 미국에 의한 민족침탈의 전쟁책동을 막기 위해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싸우고 있으며, 조국애와 민족

자주정신, 조국통일을 향한 남북의 청년학생들의 마음은 한결같음을 알아내어 ‘민족대단결의식’을 열어젖혔”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사회단체,
한총련 이적규정철폐 촉구

충북지역 사회단체는 지난 24일(수) 김대중 정권의 한총련 탈퇴공약 즉각 종전과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사법제 폐지를 위한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4천만 애국민들은 세계 각지를 통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 반민주·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한총련과 범민련에는 이적 단죄의 골매를, 강국과의 양심수에게는 준법사법제를 철폐하여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장담한 통일문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권의 반인권정책을 규탄하고 이 모두의 근본 문제의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가져내는

민주주의를 아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국민의 대화’를 진행하는 그 시간에 서울역 광장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모아내는 합법적인 민중대의 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이불배우터인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1일(월)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참가자들은 대회의 기치 아래로 민중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를 모아 ‘국민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서울방송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민중대회는 정권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경계하는 학생들의 집회와 가 여부까지 미리 이야기를 마치고 집회하러 가는 합법집회였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참가자들(한총련)의 깃발소지를 문제삼으며 행진을 가로막고, 이를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한총련)이 경찰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에 맞아 명치에 학생이 코뼈가 내려앉는 중상

을 입는 등 수명이 부상을 당했고, 많은 참가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했음에도 ‘세남’을 여는 삽질자 연(세남) 회원 김현수씨가 형사들에게 불법행위 당해 있는 고초를 겪은 사실이 알려졌다.

더군다나 등대문 경찰서 형사계 소속 김순재 경장은 참가자로 가장, 프락치 행위를 버젓히 저질렀다. 그는 현장 확인사에서 “본인은 학생들에게 섞여 계속 집회상황을 사찰하며 세남 소속 김현수씨를 연행한 후에도 집회에 계속 잔류하여 관찰하다가 학생들에게 집회하러 있다고”고 진술했다.

행사를 주최한 민중공동대위는 “다시는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중대기본권을 위헌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강력히 투쟁할것이다 3월말경 소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TV에나 민주주의 실천을 강조하던 날, 민주주의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철저히 저질러지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POSCO메시지① 개강편

나이트도 가냐?

우리 오늘 무너지자

모든은 개강날

늦은 4시에 학교 앞 16mm 홀트에서

개강다리를 하겠습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회비는 10,000 원 2차는 각속

- 과대돈 -

개강날이면 으레히 치러지는 개강날이. 밤 늦도록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것이 진정한 대학생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방학동안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고 개강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아야겠습니다. 한학기의 시작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젊음의 한순간. 지금의 한순간에 장래의 10년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의 설계는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앞장 계획으로 새학기를 준비하는 개강문화 -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일입니다.

힐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25 특별사면을 다시 본다

조건부 양심수 석방, 정치적 의도 다분

준법서약제 유지하며 국내의 비판 모면 의도...형평성 실효성 상실

"이번에 700개를 넘겼으니 생의 마음을 어찌면 이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각오나 너희들도 아버지가 왜 따라 놓았는지 바르다...아니나 다를까 전향서를 대신하여 준법서약자가 자리 잡아버렸다...양심수를 안심하고 나를 가두는 권부는 유혹과 수치를 쌓아갈 뿐이다"

구국전위사건으로 출옥해 5년째, 모두 합쳐 3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류극진 선생의 1999. 1. 31 일 편지다. 현재 최고령의 양심수다. 심장질환으로 밤마다 기침을 해 잠을 제대로 못자며 0.968원에서 죽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양심수에게 석방을 미끼로 사상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이번 사면에서 전향제 이상으로 활용되어 기만적인 사면놀음을 보였다.

지난 2·25 사면조치에서 김대중정권은 준법서약 없이 29년 이상 복역한 이원배·최창익 17명, 김용주·조상훈 등 모두 30명만 석방하고 약 25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범이 전향제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준법서약제가 시행 8개월도 안돼 옛것수 마음대로 적용돼 말쑥잡이 되버렸다. 즉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의 비판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70세가 넘는 손성모(71·19년째 구금), 신광수(71·19년째 구금) 씨는 준법서약 거부를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화춘씨 등 장기구금자와 정명기씨 등 한층 관련자 구속자의 80%(이상), 양한기 사건의 김정현·윤산동구형 등 조처사건 구속자들 30여명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더기기 된 준법서약서가 적용된 2·25 사면조치의 양날을 보자. 당근과 채찍질이다.

당근이 국내의 비판여론에 밀려 초창기 17명을 풀어주면서, 초창기수 송환을 자주적 민중들의 한층된 대의의들을 연행, 구속과 '열반위원회' 사건 등 민간통일운동과 기층민중의 자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미국과 김 정권의 뒷수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물론 이 미지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양심수들에게도 주고받기를 요구하면서 석방을 미끼로 사상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를 전향제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펼쳐졌던 김대중 정권의 인권 정책의 본질은 '인권'으로 포장된 교활한 상호주의에 있었다. 경찰 보안수사대로 '못'만

는 47명 중 74명음, 8·15에는 455명 중 94명음, 올해 2·25에는 304명 중 39명을 석방했지만 국가보안법 출소자들은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김정권은 98년 8·15의 기만적인 사면뒤부터 보안관찰법으로 출소자들에게 대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바로 10년전 세계여론에 물렸던 사회안정법이 교묘히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듯이, 98년 7월 1일 사상전향제도가 교묘히 준법서약제로 바뀌었듯이, 99년 1월 22일 안기부가 교묘히 국가보안법으로 바뀌었다. 이는 조만간 국가보안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범민주주의(?)를 처벌하는 민주적 수호법으로 바꾸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체제내화한 인권'으로 강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공안법안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통일운동과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탄압할 공안관계기관들이 모여 구성된 공안대응회의를 보라. 공안법안과 인권보장이 어찌 양립할 수 있는가. 더 이상의 기만적인 사면 놀음을 그 만두이 하라.

결국 범민련과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통일운동의 보장, 국가보안법의 해체, 국가보안법의 대대적인 포기, 양심수의 조전없는 전면적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는 김 정권의 개혁 첫걸음이자 지난 1년을 뒤엎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지만 '사형수' 출신 김 정권은 이를 놓치고 있다.

김삼석
(민권총연회 정책실장)

출소한 국내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씨를 만나

"준법서약은 법률아닌 폭력이다"

85년 구미유학학생집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간 수감생활을 하던 국내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씨가 지난 25일 안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특별사면에 의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강씨는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석방대상으로 포함됐다.

14년의 세월동안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왔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가 지난 98년 작성한 '내가 준법서약을 안쓰는 이유'의 편지글을 통해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준법서약제의 개선안을 생각해본다.

편지자



지난해 8·15 이후 감옥안에서의 생활은 어찌 됐나.

지금까지는 권력과 투쟁하기 위해 단식도 많이 했지만 근래에 소용준비를 많이 했다. 준법서약서 근거 공개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사, 사상전향제와 관련한 청구서 등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악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빌려 폭력에 불과하다. 아직도 감옥안에 갇혀 있는 수백명의 모든 양심수는 전일 석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석방조치 결정에 대한 생각은.

준법서약서는 인간의 가장 내면의 자유인 양심의 자유와 가장 내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담합하여 사형전향제와 하나도 다를바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대동성이라면 당연히 준법서

악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빌려 폭력에 불과하다. 아직도 감옥안에 갇혀 있는 수백명의 모든 양심수는 전일 석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강용주씨 편지글-내가 준법서약서를 안쓰는 이유

사랑하는 어머니!

준법서약제도가 발표된 지난 7월 초순, 당산에서 조심스럽게 "준법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때 저는 그저 "어머니, 오래도록 사서야 해요"라고 밖에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13년전 어머니와 했던 첫 면회가 생각납니다. "정황을 해라, 정황을 하라"는 다려라" 하셨습니다. 이 불효자식은 "그런말 하시려면 다시는 면회도 오지 마세요"하고 면회실을 뛰쳐나갔지요.

98년 무기형으로 확정되어 대검도소 15사로 이감됐을때, 앞에 걸린 장기수 한 분이 비전향수라는 이유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것을 무척하게 지켜보면서 이 억울한 감옥살이, 전향제도 없어지는 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98년)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한다면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법서약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 무슨 해외망향 발상인가, 참으로 서글웠습니다.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면서 그 피해자

에 대한 양심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는 못할 망정 준법서약이라... 아무런 생각도 못 생각해봐도 준법서약 제도는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처리의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 있는 편이 제 양심의 방편에서 벗어난 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 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그 따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험악무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전박한이 활용하는 판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심히 답답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일흔 셋의 담신을 생각하면 어려운 이른 가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 말...

98년 8월 15일 안도에서

보안관찰법은 무엇인가?

"옥살이도 억울한데 평생 감시라니..."

3개월마다 신고, 거주지이전·여행의 자유 박탈, 제2의 국보법,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출소자들은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인 '보안관찰법'에 의해 사소한 일상생활 하나도 감시·통제받게 된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대표적 악법으로 뽑힌 사회안정법과 대체안법으로 탄생했다. 사회안정법이란 법원의 재판 없이 사상방위를 10년 이상씩 가족에 가두어둘 수 있었다면, 보안관찰법은 출소자를 주거지 속에 감금하려는 권리가 다뤄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단지 행정처분일 뿐이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보안관찰대상자'는 국가보안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대상자와 처벌분자에겐 인권을 잃었다. 출소자의 감시와 통제는 시대에도 없는 전향공백부터 시작된다. 이어 출소사실과 가족 및 교우관계, 학력, 경력, 출소후 거주지, 정치, 범죄사실요지 등을 관찰경찰사에 신고하고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3개월마다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며,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주요 활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열흘이상의 국내여행,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은 수

시로 신고해야 하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신지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권이 박탈당하기도 한다.

2년마다 보안관찰법 처분이 갱신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 보안관찰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까지 단 한명도 면제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98년 9·8일 남매감시사건으로 구속, 97년 9월 30일 만기출소해 현재 보안관찰법의 고통을 겪고 있는 김삼석(민권총연회 정책

실장)씨는 "한미교소 출소한 양심수는 보안관찰법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또다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보안관찰법을 이용, 공안법안이 당산에도 우리에게 적화한 평생 고통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면서 사회소응에의 지향을 기피하게 만드는 대중적 캠페인들을 조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와 함께 보안관찰법에 의한 담당경찰,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있는 '인권보장' 운동한다는 것은 기만일 뿐이라는 것만 밝혀둔다.

대학생의 빈자리, 데자와로 꽉 채우자!

부드러운 영국풍 밀크티 데자와가 내 젊은 날을 채워준다. 커피가 지루할 때 내 부드러운 데자와를 생각한다.

영국풍 밀크티가 함께하는 부드러운 오후 - 데자와가 대학생 모니터를 모뎀한다?

마케팅의 신전 감각도 익히고, 용도도 넓고...기회다! 데자와는 역시 내 대학생의 유일한 파트너!

“데자와 대학생 모니터요모집”

- 모집대상 / 현재 1학년 재학생인 1998년 2학기부터의 남녀 고등, 전문, 대학교 1학년 이상인 자
- 모집기간 / 1999년 3월 15일 ~ 3월 25일
- 지원방법 / 자기소개서(A4지 1~2매)와 함께 모니터 보고서(A4지 2~3매)를 각각 10부씩 봉투에 넣어 학교에 제출한다. (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할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자기소개서 10부)
- 모집처 / 1999년 4월 25일, 재학생 및 학생회 홈페이지(http://www.qiz.co.kr)에 접속한다.
- 문의처 / Tel. 0343470 2231 1430 0427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산2동 45-1 동아대학교 학생모니터요모집팀
- * 선발된 모니터요모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교육정책은 말한다 ② 일제침략사 하

‘실용주의 교육’ ... 값 싼 노동력 착취의 수단

학생들의 동맹휴학 반일민족교육운동으로 맞서



교육정책은 말한다

순서

- ① 일제침략사 상
- ② 일제침략사 하
- ③ 타국의 교육침탈 사례
- ④ 연대 제국주의 하에서의 침략과정
- ⑤ 미국의 교육침략사 상
- ⑥ 미국의 교육침략사 중
- ⑦ 미국의 교육침략사 하
- ⑧ 제국주의 교육침략 총괄
- ⑨ 교육 침략은 말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교육침략은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행한 사상문화적 탄압이었으며, 일본제국의 신민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띠고 있었다. 이는 제국주의 교육침략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말한다”는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교육침략의 본질을 밝혀내면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 특히 대학교육의 역사와 실태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3호 ‘교육정책은 말한다’에서는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탄압의 구실을 사했던 ‘조선의 문명화’의 허구성과 기만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국주의적 교육침략이 더욱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 민중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교육개혁의 꿈’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대학들의 나아갈 길을 마련해보자 한다.

원점자

일본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조선을 점령한 후 약독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문화탄압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인의 민족주의의식과 투쟁정신을 꺾어버려 우리 민족을 ‘일본화’함으로써 아만적인 무단통치의 사상정신적 기반을 닦으려고 획책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11년 8월에 약법에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자들은 ‘조선교육령’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최의의 취지에 따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제2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주되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는 국어(일본어를 포함)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자들이 ‘조선교육령’에서 규정한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의 육성과 ‘국민의 성격’을 기른다”고 한 것은 조선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노예교육의 ‘근본방향’을 밝힌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 교육의 근본목적과 근본원리가 조선사람들을 ‘제국신민’ 즉 일본사립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조선총독부의 이 말은 식민지노예교육의 반동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무단통치시기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에서 특이한 것은 ‘간이실용주의교육’이었다. ‘간이실용주의교육’은 조선사람들 속에서 민족성이 자라나지 못하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백방으로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식민지노예로 부러먹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용적’ 기능을 키워주는 노예교육체제였다.

이 체계에서는 학생들이 4년제 보통학교를 거쳐 2~3년제의 간이실업학교를 나오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있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식민지적 직업교육을 통하여 값싼 노동력을 양성하는 체계였다.

‘간이실용주의교육’ 체계에 의해서 6살에 6년제 소학교에 입학하는 일본인 학생들과는 달리 조선학생들은 8살에 4년제 보통학교를

출입한 조선학생들을 일본인 학생들이 가는 5년제 중학교에도 갈 수 없게 하고 3~4년제 실업학교에만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저급한 교육체계로서 조선학생들을 전문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다만 저급의 식민지정책의 요구에 맞는 ‘기능공’으로만 양성하려 하였다.

민족교육 탄압의 그 구체적 사례

일제강점기자들은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일관하게 강행하였다.

일제는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학생들속에 민족의식과 반일에국정신을 고취하는 거점으로 되고있던 사립학교들을 탄압하는데 집중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규칙’에서 사립학교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고 사립학교를 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것이나 그의 ‘검정’을 받은것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일본인에 능하고 총독부가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

식민지 정책의 요구에 맞는
‘기능공’, ‘노예’ 양성이 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들의 반일에국적 성격을 거세하며 반일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자는데 근본목적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자들은 ‘사립학교규칙’을 비롯한 약법들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립학교들에 대한 탄압을 강행했다.

일제는 또한 반일적인 교원들을 일본인에 ‘정통’하지 못했다는, 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상이 ‘불온’하다는 등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학교에서 쫓아내고 그들 대신에 일본인교원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해오던 사립학교들인 경우에도 일본인교원이 1919년 현재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제의 약탈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들은 조선청년학생들 속에서 커다란 민족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언제나 세기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한 조선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들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비롯한 각종 반일투쟁을 세차게 벌였다.

1912년 이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며 그것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나갔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19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민족적 자주권을 찾기 위한 애국적 인민들의 각종 반일투쟁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대종교적 반일투쟁에도 발전해나갔다.

강점초기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교육의 탄압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은 1919년 3·1봉기를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학생들의 반일시위투쟁은 우선 중등 및 전 문학교 학생들 속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일제침략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3·1봉기에 참가한 보통학교는 전국적으로 68교인데 이것은 학교 총수의 13.7%에 해당된다.

이밖에 수도 많은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이 반일봉기에 참가했다.

반일민족교육운동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민족교육운동의 기본

거점이었던 사립학교들은 감점후 일제의 탄압으로 하여 매해 급격히 줄어들었던바 아니라 남아있는 사립학교들에서도 일제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반일에국교육의 합법적 가능성이 거의 상실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일민족교육운동에서 사립학교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학교들은 그 운동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되고있었다.

이러한 지점은 바로 억압과 굴종에 얽매이지 않는 청년학생들의 의지와 지금까지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 언제나 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참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방된 조선을 세우려한다는 의지로 우리 민족들 속에 민족주의의식과 반일정신을 고취하는데서 조선연사, 조선지리 교육의 가치는 중요한 인식한데 기초하여 감점시기기부터 사용되어왔거나 감점후 반일에 발원한 역사와 지리 책들을 갈취하여두고 온갖 기회로 다 이용하여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양하였다.

이러한 애국적사자들의 노력과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은 우리나라 민족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투쟁을 불러일으켜 일본이 정권에 패해 항복을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나라 국토의 반이상을 해방구로 만들어 놓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개입으로 여전히 민족교육은 복구되지 못한채 흐트러진다.

정민전

(민족교육연구소 연구원)



수강신청 후유증

우리학교 온라인수강신청은 너무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크로니클 바늘구멍에 한 번 들어보니 자신도 모르는 중상들이 몸을 괴롭히더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이 침침하고 손은 떨리고 율화가 치밀어 주체할 수 없고 심지어 입에 거품까지 튕겨 된다.

“수강신청 한 번만 더 했다가는 학교 못다녔네” (우)

최근 외국어대학교가 어떤대학이 아닌 자연대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기로한 상대평가제도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논리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도 상대적이라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최상이론으로 벌써 이것을 응용하여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연과학에 보통 관심이 있지 않다고는 어려울 일인데...

(석)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지”

전국 각지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수배자들. 그들은 언제까지 이 지겨운 숨바꼭질을 해야하나요?

정치수배자에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한 정치수배자들이 꼭꼭 숨어서 술래에게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

“GOD의 ‘여러나’에 맞춰”

나는 어렸을때부터 공부했어 뭐든지 한 번 들어 이해 못했지

그러다가 대학에서 F받았어 두 번돌으면 나도 A 맞을거야 부름있었지

그런데 이제부터 재수강하면 A안준대 안준대

아이아이아이

그렇게 F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A 못맞아

아이아이아이

7월 8기 공론대 대학에선 안통해

(정)

A 못받는 나

비둘기철판

왕산골

○축하합니다

· 더듬! 더듬! 축하합니다. 이 글을 확인하는대로 연락 좀 주라. 연락처: 012-1029-0335

○말립니다

· 동양빌라 D동 102호 방 내놓습니다. 연막 많이 주세요. 가격은 남들 받는만큼만 받습니다. 문의: 334-4349

(102호 아줌마)

· 주자하십니까? 오! NO! 절대 주자하지 말고 꼭꼭하게 물어주세요.

곳: 학생회관 318호

(순말사랑회)

· 가톨릭 학생회 개강총회 합니다. 때: 3월 8일 (월) 늦은 5시 30분 곳: 동아리방 회비:5000+α

산입생 대모집 합니다. 문의: 구내전화 4427

(가톨릭 학생회)

· 사진을 배우고 싶은 분 몇천 선배와 만나고 싶은 분 대학에 들어와 특별한 것을 찾는 분 당신이 찾는 곳, 당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반 누리에 입니다. 학생회관 414호로 오세요.

(사진반 누리에)

· 지금 막 동아리문을 두드리는 그대 새내기! 주자하지 말고 한알의 문을 여세요. 곳: 학생회관 지하

(향년 품종에 한알)

이문벌

○알립니다

· 인도어와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8월(월) 1~3 대면식 5시 바통스 10월(수) 1~4 대면식 5시 외대호프 12월(목) 인도어와 축구대회 3시 대운동장

(동일 인도어와 학생회)

· 동역협의 산입회원 선발 때: 17일(수) 원사배부: 8~15일(월) 지각: 9년 상반기 졸업생을 제외한 외대학부생 응시인원: 외대에 개설된 모든언어 문의: 968-6377, 961-4169

(동역협의)

· 손소리수 수학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소리수)

때: 3월 16일 (화)부터 매주 화·목 늦은 5시부터 7시 사이

곳: 학생회관 (1302)

· 새내기 여러분! 영화를 사랑한다면 빨리 와-인 아늑한 실내공간, 전세제 50여개 채널시청 가능해요. 망설이지 말고 여서요!

(영화클럽)

· 사회과학계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회비로 12월(금)까지 7만원을 사회대 학생회실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2대 동원 사회과학계 학생회)

· 모의 UN 회의를 함께 만들어요. 준비위원을 3월 8일(월)부터 3월 20일(토)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곳: 학생회관 2층

(모의 국제 연합)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용인 배움터 각 과개강 총회 열려

등록금 삭감 투쟁에 대해 논의

용인배움터 2학기 과개강총회가 지난 4일(목) 저녁 7시에 시작되었으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등록금삭감투쟁에 대해 학생들에게 신중히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어과
인도어과는 지난 4일(목) 오후 200에서 △방중사업보고 △에·결산안 보고 △상임소회 △기성회비 납부기부부우정장학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학생회장 남병희(3)군은 기성회비 납부기부부우정에 대해 설명한후 "등록금삭감투쟁으로 인도어과 학생들이 받고 열심히 추진하여 왕년의 모범

으로 자리잡자"고 당부했다. 한편 개강 총회후에는 산구대면식이 진행됐다.

제어계측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는 지난 5일(금) 오후 200에서 신입 인문사회교수 및 과개강 회 집행부, 상임소회, 복학생, 재학생, 편입생의 소개와 과 전체교수, 학생들은 확인한 자리를 가졌으며 안전으로 연립M·T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수학과
수학과는 같은날 저녁 311호에서 △등록금부담 설명 △1학기 행사(연한 M·T) 계획 △과개강의 집행부소개 등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자연대 학원자주화추진

위원의 집행부장 김영필(물리4)군은 공학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과학생화학 홍성원(3)군은 "수학과는 학부제의 특성을 지닌만큼 과로의 단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환경학과
환경학과는 같은날 저녁 200에서 총원 170명 중 학원인원 95명으로 개강총회를 성사시켰다. △방중사업보고 및 1학기 사업보고 △학과총회 △등록금삭감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물리학과·생명공학과
물리학과와 생명공학과도 같은날 저녁에서 각각 개강총회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은 등록금삭감투쟁이었는데 이와관련 물리학과 학생회장 허정운(3)군은 "우리와는 양산전체과 중에서 등록금 미납율이 82%로 가장 높다"며 "계속적인 투쟁으로 등록금삭감투쟁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물리학과는 졸업여행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보통계학과
정보통계학과 또한 같은날 오후 206호에서 등록금삭감투쟁을 주요안건으로 총회를 열었다. 정보통계학과는 등록금삭감투쟁의 적극적응을 위해 미납자를 중심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인도어과 개강맞이 체육대회 실시

서울 배움터 인도어과에서 개강맞이 산구대면식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오는(월)은 1학년과 3학년의 대면식(수)은 1학년과 4학년의 대면식이 열린다. 또 12일(금)은 운동장에서 재학생과 복학생간의 축구시합을 진행한다. 이에 인도어과회장 김성식(3)군은 "축구시합을 계기로 복학생과 재학생간의 친목을 다졌으면 한다"고 이번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우리 학교 교지 새내기호 3월 5일(금) 발행됐다.

교지, 새내기호 발행

지난 1월부터 기획하기 시작한 이번 교지 새내기호는 1년3회 발행체제로 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로 재학생이 보기에 부담없이 만들어졌다. 이에 교지편집위원장 이보라(동양·중국어)장은 "흔히 교지를 운동권 집지점으로 생각해 학생과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교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범대 교과과장이이수신청서(추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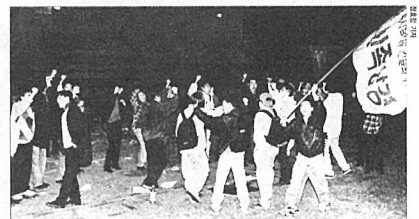
우리 학교 사범대는 99학년도 교과과장이이수신청서(추가)를 8월(월)부터 12월(금)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교과과정 4.5학기 등록생으로 대상자는 서울은 사범대 교과과, 용인은 교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교과과정 이수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로 명단이 교육부에 등록되어야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늘부터 장학금 지급개시

우리 학교는 8월(월)부터 28일(금)까지 재일은행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교과과정과 경리과에서 등록확인을 받은 후 산본생, 학생중, 도장을 지참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또, 신입생과 보충대상자는 학생처 장학과에서 장학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범연구실 입실시험접수받아

법률담당소에서 10일(수) 5시까지 사범고교연구실 입실시험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13일(토)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접수할 때 알 수 있다. 시험과목은 1학년의 경우 어학반 실시하며 2학년 이상은 이학과 법학의 2과목을 실시한다.



상경대 1학년 계열 개강파티

상경대는 5일(금) 100여명의 신입생이 참여한 가운데 1학년 계열 개강파티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학생은 세트로 나누어서 모임을 가진 후 10시경 다시 노천으로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상경대학생회장 구준희(무역3)군은 "그동안 개강파티 등으로 인해 1학년에 모인 것은 거의 30만명 정도인데 학생들이 많이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재식 기자

서울, '영화가 들려주는 20세기 역사 이야기' 행사등 진행

장자의교과과와 리딩 컬처(READING CULTURE)에서 주최하는 '영화가 들려주는 20세기 역사이야기'와 '20세기

음악의 사회사'가 오늘(월)부터 12일(금)까지 열린다. 대학원 소극장(6104)과 로비에서 열

리는 이번 행사는 R.C.편집장인 '20세기의 단편'을 개막식으로 하여 '비본드 랭크', '랜드 힛트' 등의 영화가 매일 1시부터 세관관 상영된다. 또한 음악부스를 설치하여 각 부스마다 사회주제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학교 입학식 행사 진행

서울 배움터는 지난 2일(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가량 분수대 앞 광장에서 입학식을 진행했다.

모두 1926명이 입학한 올해 입학식은 신입생 대표선서, 총장, 이사장 및 동문회장의 축하연설, 우수입학장학금 수여식등의 순서로 치러졌다. 한편, 용인배움터에서도 같은날 노천광장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식 선서식 △총장, 이사장, 동문회장 축사 △장학금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또, 직후에 열린 학생회입학식에서는 풍물패의 판굿, 율동대 공연, NSM공연 등의 축하공연과 총학생회장 인사가 있었다.

용인, 3차확대운영위원회 오늘 열어

용인배움터 3차 확대운영위원회의가 오늘 8일 오후 200호에서 6시에 열린다. 총학생회와 확대운영위원 전원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3차 확대운영위원회는 △3월 사업계획서 인준 △등록금삭감투쟁계획 인준 △산본언어과와 전임교수 채용에 관한 총학생회와 입장 △교수정제개혁에 관한 총학생회, 컴퓨터공학과 및 총학생회 입장 △대체대학국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총학생회 상정서 발표 등이 의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동진(자연·환경4)군은 "확대운영위원회의를 통해 3월 투쟁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한다"며 "확대운영위원 전원참가인 등록금삭감투쟁의 첫걸음이라하는 생각으로 많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교협회장장에 김태정 교수



김태정(일본어)교수가 지난 3일 1일자로 우리 학교 교수협의회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교수협의회의 부회장에 서울은 이은영(법과)대교수가 지명되었으나 용인은 아직 미정이다. 김태정 교수는 교수협의회장에 선출되면서 "교과수호, 교수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협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가요 타래판때 계획중인 이문희 학생을 만나



"대학에서 민중문화가 살아났으면 합니다"



요즘 대학가의 각종 모임에서는 민중가요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민중가요 테잎(타래)을 소지하면서 듣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번주부터 그런 민중가요 타래(테잎)을 원가로 판매하기로 한 이문희(사회·신방3)군은 민중가요에 대해 "삼일투쟁과 개인적인 대중문화상품

에 비해 집단적이거나 방향성을 가진 소재로 삼았다는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에 서울배움터총학생회 문태국으로부터 '이 주의 보급곡'이라는 테잎을 각 단대에 팔기도 했던 이문희군은 이번 계획 역시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올해 겨울방학때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목적에 대하여 "삼일투쟁의 사립타령 일색인 대중문화가 대학가에서 판치는 상황에서 건전한 사립인 민중가요 노래타래를 많이 보급하기 위하겠다"고 말한다. 올해는 갈래협의회를 통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얻었으면 하는 효과에 대해 "외대내에 민중가요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민중가요 테잎의 판매량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노래타래들이 최

소한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외대인들이 이번 행사에 호응을 갖고 관심있게 바라보았으면 한다. 대학문화에서 민중문화가 살아내는데 많이 동참하면 한다"고 외대인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각 단대를 거점으로 하여 판매에 나서겠다는 그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금전문제를 들며 "초기자본은 총학생회에서 지원받은 후 판매대금을 다시 총학생회에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지막으로 이문희군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간곡한 어조로 "이번 행사가 외대내의 문예운동을 부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고, 삶을 중요시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민중가요가 여럿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른 노래보다 많이 불려졌으면 한다"고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

류재식 기자

추가등록기간 안내

1999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1999년 3월 11일(목)부터 1999년 3월 17일(수)까지
 2. 등록장소 : 세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정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할 것 (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금이 표시된 학생은 제외·지역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영수증은 소독세탁 시행규칙에 의해 교육비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또는 용인 캠퍼스 총무과에 문의바람(구내전화 4043, 4044)

1999. 3.
재 무 처 장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아간 10주 대학(원)생 과정)

1. 모집학과 : 영 어
2. 교육기간 : 1999. 4. 12(월)~6. 18(금) 10주(제38기)
3. 수업시간 : 월, 화, 목, 금(주 4일), 1일 2시간 (17:30~19:20)
4. 등록기간 : 1999. 3. 26(금)까지 선착순 접수

학 기	교 육 기 간	원 시 교 부 및 입 수	비 고
제38기	'99. 8. 2~10. 8	'99. 6. 28~7. 16	
제40기	'99. 10. 11~12. 17	'99. 8. 30~9. 17	

5. 문의 처 : 연수평가원 연수부
(☎ 961-4174, FAX 962-0575)

1999. 3.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대학원 석·박사과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출입 신고
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전입신고
사유발생(등록후)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지·읍·면·동사무소·병사담당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직장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휴학 및 재적생(자퇴) 전출신고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본인이나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 전·출입 신고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양식 : 비상계획관실에 비치)
2) 학적본 등 신고서(학적과 비치 : 복학생) 및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복학생)

2. 현주소 변경신고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현주소 변경시 비상계획관실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규위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학교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99. 3.
비상계획관장실

'99학년도 교직원 이수신청서 접수(추가)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세칙 제15조 및 본 대학교 교직원 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99학년도 교직원 이수신청서(추가)를 접수합니다.

1. 대상 : '99학년도 현재 교직원에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이수중인 제4, 5학기 등록학생으로서(전기 접수 기간에 미접수한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2. 접수기간 : 1999. 3.8(월)~3. 12(금)
3. 학 인 처 : 행정과
4. 접 수 처 : 서울·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용인캠퍼스 교무처
5. 제출서류 : ○교과과정 이수신청서(소재양식) 1부
○주민등록본본 1부
○학원성적증명서(교과목목차) 1부
6. 교과과정 이수신청자는 명단이 교육부에 등재되어야 자격증이 발급된 뒤 자격증의 사제가 없도록 한 것.

1999. 3.
사 범 대 학 장

